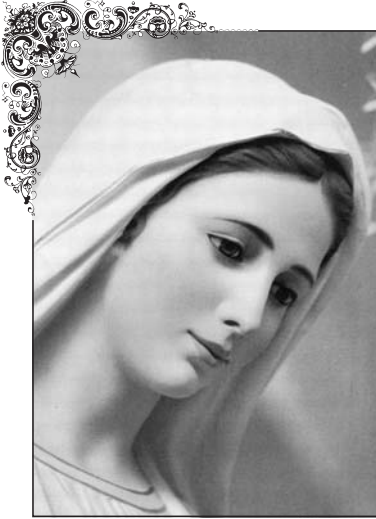


The Queen of Peace

# 평화의 모후

2009, December / 제53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에게 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  
나는 너희 모두를 축복하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시작하신 이 길을 가면서 성장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기도하고, 단식하며, 너희의 신앙을 기쁘게 증거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의 마음이 언제나 기도로 가득 하기를 바란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

2009년 10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 성탄을 축하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0년 새로운 한 해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사랑이  
가득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2009년을 마감하고 2010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선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함께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함께

애써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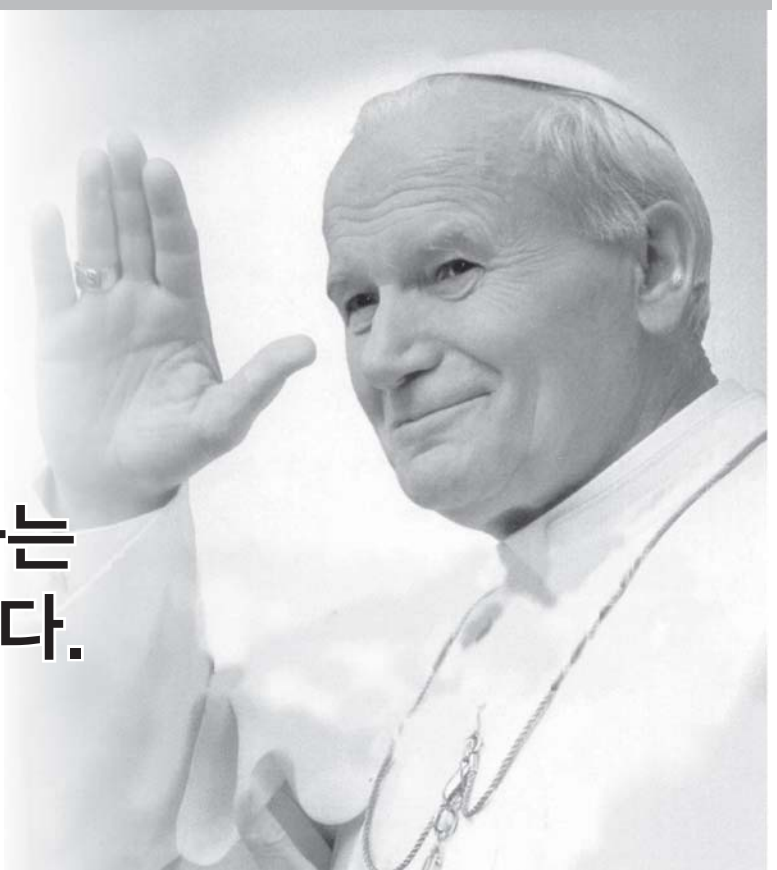
평화의 모후 선교회 |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신경남 스테파노

회 장 : 남홍익 그레고리오  
한국지부장 : 박연자 안젤라  
후원 회장 : 권수정 레지나

##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의 성모 신심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000 가정을 봉헌합니다.
- 가족 모두에게 굳은 믿음과 성령이 함께 하시길 청합니다.
- 한영순 올리안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낙태로 죽어가는 태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000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신경남 신부님과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목주의 9일 기도청원이 이루어도록 도와주소서.
- 성모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 저희 남편이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모든 젊은이들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연옥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두 동생의 가정이 화목하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청합니다.
- 성모님, 저도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000를위해 기도합니다.
- 선교회의 어머니마을과 모든 봉사자들,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여섯째 아기를 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 사랑하는 성모님, 저희 가족들의 화목과 사랑, 용서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루시아가 내적치유를 받고 주님의 은총으로 아기를 갖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 가족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청합니다.
- 진도미니카 조상님들과 연옥영혼중에 가장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모님, 사업에 주님의 보살핌과 평화를 내려주시도록 자비를 풀어주소서.
- 남편과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와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전구에 감사드립니다.
- 주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남편의 회개와 가족들이 목주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 성모님, 아들이 어려움을 통하여 앞으로의 삶에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00이 유혹에서 벗어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여 성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소서.
-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성모 마리아여,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 성모님, 미사참례와 기도로부터 멀어진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장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세요.
-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회의 수사님 영혼이 주님의 자비로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 아들이 하루 빨리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주님, 저의 미약한 기도 들어주시어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 주님, 서로가 주고받은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굳건히 따르게 하소서.
- 자비하신 하느님, 가물어 메말라가는 심령들을 당신의 빛과 사랑으로 새롭게 하소서
- 저희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장 사랑하는 00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000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아내의 허리가 수술없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하겠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선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참으로 성체성사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가톨릭 교회에는 교황님들이 남기신 주옥 같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유산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연재합니다. \_편집실 주\_

제1장 신앙의 신비 : 11.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1고린 11,23) 당신의 몸과 피로써 성찬의 희생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성체성사가 세워진 그 극적인 배경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찬례는 주님의 수난과 죽음이라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히 상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성사적으로 재현합니다. 성찬례는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십자가의 희생 제사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라틴 예법에서 "신앙의 신비여!"라는 사제의 선포에 대하여, 신자들이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잘 표현됩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를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다른 여러 선물 가운데 매우 값진 하나의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비할 데 없이 탁월한 선물로 받았습니 다. 이것은 그분 자신, 곧 거룩한 인성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의 선물이며, 당신의 구원 활동의 선물이기 때문입니 다. 또한 성체성사는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 곧 모든 인간을 위하여 그분이 행하고 겪으신 모든 것이 하늘의 영원성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에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 다." 교회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인 성찬례를 거행할 때, 이 구원의 중심 사건은 실제로 현존하게 되

며, "우리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희생 제사는 인류의 구원에 매우 결정적인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치 그 자리에 함께했던 것처럼 그 희생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 주신 다음에야 희생 제사를 바치시고 성부께 되돌아가셨습니다. 이로써 각 신자는 그 희생 제사에 참여하여 그 열매를 끊임없이 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세 대대 이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의 교도권은 그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선물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변함없이 이 신앙을 재확인해 왔습니 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러한 진리를 상기시키며 위대한 신비, 자비의 신비인 이 신비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조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로써 우리에게 "극진한"(요한 13,1 참조)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보여 주십니 다.

12. 성찬의 희생 제사가 지닌 이러한 보편적 사랑의 측면은 구세주 자신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그저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고 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

##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십니다."



다."(루가 22,19-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주시는 것이 당신의 몸과 피라고만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희생 제사적 의미를 분명히 하셨으며,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곧 바쳐지게 될 당신의 희생 제사를 성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영속되는 제사적 기념이며, 동시에 또 이와 분리할 수 없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거룩한 친교의 잔치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희생 제사에서 자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길어 옵니다. 교회는 신앙으로 충만한 기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 희생 제사에 다가갑니다. 이 희생 제사는 축성된 집전자의 손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공동체 안에 성사적으로 영속하면서 언제나 새롭게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대의 인류를 위하여 단 한번에 이루신 화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 제사와 성찬의 희생 제사는 동일한 제사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 희생양을, 내일은 또 다른 희생양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희생양을 바칩니다. 그러므로 희생 제사는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 지금도 우리는 단 한번 바쳐졌으며 결코 없어지지 않을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며, 그 희생 제사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도 그것을 늘리지도 않습

니다. 되풀이되는 것은 그 제사를 기념하는 의식 곧 "기념의 표명"(memorialis demonstratio)이며, 이로써 그리스도의 하나이며 결정적인 구원의 희생 제사가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똑같이 현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찬 신비의 희생 제사적 성격을 십자가와 별개인 독립된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해골산의 희생 제사를 단지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3. 성찬례는 해골산의 희생 제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희생 제사이며, 단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영적 양식으로 내어 주시는 것이라는 식의 일반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요한 10,17-18 참조)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보다도 성부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를 위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선물(마태 26,28; 마르 14,24; 루가 22,20; 요한 10,15 참조)이지만 무엇보다도 성부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그 희생 제사를 아버지께서는 받아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필립 2,8) 당신 아드님의 전적인 자기 증여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의 자부적(□□□) 선물을 주셨으니, 이것이 부활로 불사불멸하는 새 생명의 보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당신의 희생 제사를 맡기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결합되어 자신을 봉헌하도록 부름 받은 교회의 영적 희생 제사를 또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와 관련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신적 희생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봉헌합니다."

14. 그리스도의 파스카는 그분의 수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축성에 이어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하는 신자들의 응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의 희생 제사는 구세주의 수난과 죽음의 신비뿐만 아니라 그분의 희생의 정점인 부활의 신비도 드러냅니다. 이것은 살아 계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 안에서 "생명의 빵"(요한 6,35. 48), "살아 있는 빵"(요한 6,51)이 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새로 입교한 신자들에게 성체성사는 부활 사건을 그들의 삶에 적

##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용시킨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십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은 또한 거룩한 신비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생명을 얻으셨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15.** 부활로써 그 정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미사에서 성사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실제 변화라는 매우 특별한 현존과 관계됩니다. 바오로 6세의 말씀에 따르면, "성체 안에서의 현존이 '실제적인 것'이라 불리는 것은, 마치 다른 현존 방식이 '실제적'이 아닌 것처럼 배타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의심 없이 총체적으로 또 온전하게 하느님이며 인간으로서 현존하시게 되는 곧 본체적인 현존 방식입니다." 이는 트리엔트 공의회는 영구적이고 유효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은 빵의 전 실체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의 전 실체를 그분의 피의 실체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실제 변화라고 적절하게 불러 왔습니다." 참으로 성체성사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거룩한 성사에 관한 교회 교부들의 교리에서 흔히 설명되듯이,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이며 오직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는 신비입니다.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은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단지 자연적인 요소로만 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것들은 당신의 몸과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다르게 받아들여지더라도, 신앙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엮디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Adoro te devote, latens Deitas). 우리는 천사, 성인 성녀와 함께 계속해서 노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신비 앞에서 인간의 이성 그 한계를 절감합니다. 우리는 수세기에 걸쳐서 신학이 이러한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 온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한 노력은, 특히 교도권의 "확고한 진리의 은사"와 특히 성인들이 도달하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인식"을 통해 파악되는, 교회의 '살아 있는 신앙'에 비판적 사고를 결합시킬 수 있을 때에 더욱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것이 됩니다. 바오로 6세께서 정해 놓으신 경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를 이해하려는 모든 신학적 설명이 가톨릭 신앙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면, 빵과 포도주는 축성된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더 이상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 예수님의 숭고한 몸과 피가 그 순간부터 실제로 우리 앞에 성사의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계시다는 것을 확고하게 단언하여야 합니다."

**16.** 희생 제사의 구원의 힘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영성체에서 완전하게 실현됩니다. 성찬의 희생 제사는 본질적으로 영성체로 이루어지는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내밀한 결합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바로 그분을 받아 모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신 몸과,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마태 26,28) 피를 받아 모십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요한 6,57)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삼위일체의 생명의 결합에 비유하신 이러한 결합이 참으로 실현되었다고 직접 우리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성찬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 주시는 진정한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자, 당신 말씀의 객관적 진리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요한 6,53) 이것은 비유적인 양식이 아닙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요한 6,55) **M**

## 어둠속의 빛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무소부재'와 '전지 전능'을 온 우주에 반영하신다. 인간은 악으로 말미암아 멍한 상태가 되었다. 아니, 그렇다기 보다, 원죄로 상처 입은 인간 본성은 마치 심근경색에서 깨어나는 사람과 같다. 아주 서서히, 주변의 사물과 음성과 얼굴들을 희미하게 의식하는 것이다. 원죄로 너무나 심각한 비극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낮이 나간 듯 멍해졌고, 하느님의 빛도 빼앗겼으며, 그 자신의 존재 이유요 원인인 중요한 영적 실재들도 지각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몸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하느님께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원죄가 인류를 더없이 짙은 암흑 속으로 던져 넣은 것이다. 이 어둠을 흠어 버리기 위해서, 때가 차자, '세상의 빛'인 하느님의 아들이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었다. 이 동정녀는 시간 속에 나타났지만 하느님께서 당신 성령 안에서 영원으로부터 생각하고 원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하느님의 무소부재와 전지 전능과 사랑으로부터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인간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적인 피조물이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 곁에서 하느님의 외아들의 어머니

로서 합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다. 하느님의 외아들은 참 하느님이며 참 사람인만큼, 마리아는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이 사실로 하여 마리아께서는 천사들을 능가하는 높은 자리에 위치하신다. 하느님 다음으로 가장 높이신 그분은 하느님의 어머니요 딸이며 정배이시다. 마리아의 참여는 오직 하나뿐인 고유성에 있어서 다시는 반복될 수가 없다. 마리아는 바로 하느님의 권능으로 위대하고 능하신 분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무익한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느님인 내가 내 어머니의 헤아릴 수 없이 높은 품위에 네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곧 마리아는 성삼위 하느님의 은총에 온전히 일치하심으로써 그와 동등한 존재가 과거에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외적인 분, 영원히 예외적인 분이라는 사실이다. 하느님과의 일치에 있어서 내 어머니의 일치만큼 위대하고 완전한 일치는 달리 없는 것이다. 마리아는 사탄과 그 일당의 반역으로 심히 흔들린 우주의 균형을 회복하는데에 협력함으로써, 나와 더불어 공동 구속자가 되는 사명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 구속자적 특성으로 인해 '교회의 어머니'가 될 사명도 받으셨다. 교회는 마리아께서 나와 함께 고통과

## 하느님의 어머니시요 딸이며 정배이신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

사랑으로 낳으신 것이니 그분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의 영구적이고 완전한 사제직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사람들이 마리아 앞에 엎드리고, 지옥의 마귀들은 무서워 떨면서 달아나는 것이다.

### '교회의 어머니' 이며 마귀들을 이기는 마리아

이 사실은 나의 이름과 마리아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영들을 지옥으로 다시 쳐 넣어야 할, 쇠신된 교회의 사제들인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불신이나,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교회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해야 하는 이들의 어리석은 무기력에 과념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한다. '교회의 어머니'이고 '사도들의 모후'이며 '승리의 여왕'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는 또 다시 승리하실 분인, 내 사제와 목자들의 무기력을 고쳐주시고, '독사'의 머리를 한 번 더 짓밟으실 것이다. 갈바리아의 십자가로, 나와 내 어머니는 악의 어두운 권세를 이겼고, 착한 뜻을 가진 영혼들의 해방의 시작을 알렸다. 갈바리아의 십자가로, 교회는 그 자신을 어둡게 하고 중독시키는 (사탄의) 연기에서 빠져나와 구원의 좁은 길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아들이, 강복한다. 나를 사랑하여라!

(1977년 2월 20일)

내 어머니께서 나의 '강생'에 참여하신 것은 위대하고 숭고한 신비이다. 내게 육신 생명을 주시고 나의 탄생을 전후해서 나를 먹이시고 기르신 그분에게, 나는 갈수록 풍성하게 나의 '신적 생명'을 드렸다. 그러므로 나는 내 어머니의 인성의 일부이고, 어머니는 내 '신성'의 일부인 셈이다. 나와 그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오직 하나이고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모양으로 융합되었기 때문에, 나의 것은 무엇이든지 어머니의 것도 되고, 어머니의 것은 무엇이든지 나의 것도 된다. 어머니께서 내 '강생의 신비'에 참여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과 애정과 기쁨과 고통이, 말하자면 단 하나의 동일한 근원에서 샘

솟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그분은 나의 무한한 고통에도 참여하셨거니와, 신비스럽도록 너무나 열렬히 참여하셨기 때문에 인간 정신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이다. 같은 이유로, 삼위일체인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도, 인간 정신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분은 내 안에서 사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산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1975년 7월 15일)

### 어린 양 과 함께 자신을 바치신 마리아

동정녀께서 '십자가의 신비'에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내 어머니께서 '십자가의 신비'에 참여하신 일은 인류 역사상, 또 하늘의 역사 속에서도 유일 무이한 사실이다.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 내 어머니 홀로 참된 사제이시다. 성서에 통달하고 성령의 비추심을 넘치도록 풍성히 받으실 그분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로 응답함으로써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잘 알고 계셨다. 게다가, 시므온 노인은 그분을 향해서 "칼이 당신의 영혼을 꿰뚫을 것입니다..." (루가 2, 35 - 역주) 라고 곧이 곧대로 말하였다. 내 어머니는 당신에게 아주 분명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 무서운 예언을 마음 속에 간직하셨다. 그분은 참으로 사제이셨다. 말하자면,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들과 같이 보편적 의미에서 사제이거나 또는 성직자라는 의미에서 사제가 아니라. 신 품성사를 받은 이들과는 다르게, 그러나 한층 더 심오하게 참 사제이셨다는 것이다. 내 어머니는 갈바리아 정상에서 당신 아들이며 '하느님의 어린양'인 순결하고 거룩한 '희생 제물'을 성부께 바치셨고, '어린 양'과 더불어 당신 자신도 바치심으로써 참으로 사제이셨고, 지금도 사제이시다. 그러므로 내 어머니 역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분은 나와 한마음으로 참여하며 그 자리에 계셨으니, 수동적으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

당신의 영혼을 꿰뚫을 것입니다..." (루가 2, 35 - 역주) 라고 곧이 곧대로 말하였다. 내 어머니는 당신에게 아주 분명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 무서운 예언을 마음 속에 간직하셨다. 그분은 참으로 사제이셨다. 말하자면,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들과 같이 보편적 의미에서 사제이거나 또는 성직자라는 의미에서 사제가 아니라. 신 품성사를 받은 이들과는 다르게, 그러나 한층 더 심오하게 참 사제이셨다는 것이다. 내 어머니는 갈바리아 정상에서 당신 아들이며 '하느님의 어린양'인 순결하고 거룩한 '희생 제물'을 성부께 바치셨고, '어린 양'과 더불어 당신 자신도 바치심으로써 참으로 사제이셨고, 지금도 사제이시다. 그러므로 내 어머니 역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분은 나와 한마음으로 참여하며 그 자리에 계셨으니, 수동적으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





성제를 통해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십자가의 신비 - 이 숭고한 실재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이다. 사제들은 축성된 제병 안에 현존하는 내 곁에, 갈바리아에서 그러했듯이, 내 어머니께서도 함께 계시면서 나와 당신을 동시에 성부께 바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느 날인가 수많은 내 사제들이 이 위대한 신비들의

라, 하느님이신 당신 아들과 함께 인류 역사의 중심인 '구원 사건'의 참된 주역이셨다. 사제가 참으로 사제인 것은 미사 때마다 새롭게 재현되는 이 이중적인 봉헌 행위를 통해서이다. 사실, 사제가 나와 함께 나 자신과 그 자신을 성부께 봉헌할 때만큼 사제다운 때는 달리 없다. 바로 그 때문에 내 어머니는 공동 구속자이시다. 이 봉헌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온전히 죽이셨다.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은 온전히 타 버릴 때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니,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거룩하고 순결한 어머니의 마음을, 모든 어머니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어머니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 어머니로서의 모든 감정을 희생으로 바치면서 당신의 "피앗"(flat)을 곧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가 1, 38 ? 역주)를 거듭해야 하셨고 또 그러기를 원하셨으며, 예수처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마태 26, 39 ? 역주)라고 말씀하셨다. 이 형언할 수 없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 인간적 척도로는 짚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만이 내 어머니로 하여금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하시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내 어머니는 사제로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를 하느님께 드렸고 사람들에게도 주셨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뜻 밖의 놀라운 일

사람들은 사물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고, 그나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일은 더욱 없다. 사람들, 곧 사제들과 봉헌한 이들 중에 '십자가의 신비'가 끊임 없이 재현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미사

주역인 나에 대해서, 또한 내 어머니이며 그들의 어머니이신 분에 대해서, 생각없이 단지 형이하학적으로만 더불어 있었음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뜻 밖의 놀라운 일이 되겠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라. 허다한 내 사제들의 무분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열매가 유실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성화의 길을 걷지 못하며, 그리하여 얼마나 끊임없이 독성죄가 저질러지게 되겠는지를! 내 어머니는 나와 온전히 하나 되어 계신다. 그분 안에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내 어머니야말로 참으로 모든 사제들의 모범이시다! 내 사제들이 나와 내 어머니 사이의 완전한 일치를 본받는다면, 그들의 "자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날마다 투쟁할 것이다. 또 나와 함께 그들 자신을 성부께 바치고, 세속을 따르는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면, 내 멍에는 가볍다. (마태 11, 30 참조 - 역주)는 것을 체험할 것이고, 내 교회는 나무에 열매가 풍성히 맺혀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아들아, 무서운 눈사태가 난 것처럼 세상은 멸망을 향해 내리닫고 있다. 눈사태가 나기 시작할 때는 거의 표가 나지 않는다. 첫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다가 조금씩 서서히 커져서 급기야는 저항할 수 없도록 세차게 내리치는 것이다. 분별없는 사람들은 눈사태가 시작되어도 그 재난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마주 보며 나아간다! 경종을 울려도 별로 소용이 없다. 경종을 경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못 들은 척 무시하는 사람들만 많다. 그러나 나의 자비로운 마음과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제들이 하늘에서 오는 슬한 호소들을 무시한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중대한 책임인지!..... 기도하고, 보속하고, (고통과 희생)을 바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긴급히 해야 할 말이다. 긴급히 해야 할 일이다. (1975년 7월 28일) M

(가톨릭 출판사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에서 발췌)



## 이미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다

300. 84.12.24.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아기 예수'께서 곧 탄생하시려는 이때,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해 전념하여라. 티없는 내 성심 안에서 이 '거룩한 밤' 시간을 지내어라. 끊임없는 기도의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기도가 바로 우리 주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자녀다운 말김의 담화가 된다. 이 말김에 의해 나는 내 '아들'의 현존에 대한 환희로운 체험의 흐름에 실려가고 있었다. 시간의 세계 속에 탄생하실 때가 되신 그분을, 아주 역력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그래서 내게는 오직, 너희 가운데 오시어 형제로서 살고자 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원의에 몸을 숙인 채 엄마로서의 다정한 동의를 읊조리며 걷는 길이 되었다. 침묵과 귀 기울임, 관상과 사랑, 흠숭과 기대에 찬 담화로 그분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계속된 기도가 우리를 맞아준 '동굴'까지의 여정 전체를 휩싸고 있었다. 동굴에서는 한층 더 열렬하게 마음이 수렴(收斂)되는 기도에 잠겼는데, 그

정도가 어찌나 강렬했는지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막이 열려 하늘의 심오한 황홀경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거기서 나왔을 때는 이미 태어나신 내 '성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너희는 고통의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겸손한 응답으로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겪었다. 나의 내적 고통은 상황의 전개를 통해 내게 일어난 것이거니와, 바로 그러한 상황 전개가 그분 '사랑'의 계획이 엄마인 나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아기'의 탄생을 그토록 정성들여 준비했던 나자렛 집을 단념해야 했던 일,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을 향한 길로 나서야 했던 피곤한 걸음, 앞으로 마주칠 상황에 대한 불안, 어느 집도 우리를 맞아주지 않던 거절, 차디찬 동굴 속에 묵어야 했던 비참한 피신. 이 모든 것이 그 수만큼 '엄마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고통을 이제 막 탄생하시려는 내 '아기'께 보다 값진 요람을 마련하라고 성부께서 내

## 지금은 이미 너희 모두가 마음을 모아, 끊임없이 신뢰 가득한 기도를 올릴 때이다.

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기도와 고통을 요구한다. 영광에 싸여 다시 오실 예수님께 합당한 거처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협력하는 길이 바로 기도와 고통인 것이다. 어머니의 중개활동이 오늘날 더욱 빈번하고 예사롭잖으며 긴급해지기도 했으니, 이것이 뜻하는 바를 깨달아라. 이 '거룩한 밤', 나는 마지막 시대의 '천상 예언자'로서 너희에게 더욱 분명하게 보일 메시지를 주고 있다. 영광에 싸여 오실 예수님의 '두번째 성탄'을 준비하여라. 너희 가운데서 다스리기 위해 곧 오실 그분은 바로 기도와 고통이라는 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지금은 이미 너희 모두가 마음을 모아, 끊임없이 신뢰 가득한 기도를 올릴 때이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먼 여정 동안 내가 줄곧 그렇게 했듯이 말이다. 계획을 짠다든지 토론을 벌인다든지 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

귀를 기울여 알아듣고자 하는 이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이 증오와 죄로 메말라 있고,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깊은 암흑

에 싸여 있으며, 오시는 그리스도께 인류가 더 이상 문을 열어 드리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마음의 가난한 동굴을 열어라. 그리하여, 이것이 흔들림없는 믿음, 확고한 희망, 불타는 사랑의 빛이 되어 깊은 밤 속에서 빛나게 하여라. 그리고,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고통을 참아받아라. 하느님께서 내게 하셨듯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고통은 그분의 사랑 가득한 계획의 일부이다. 그분의 새로운 탄생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모두에게 고통이 그만큼 더 많아지리라. 너희 천상 엄마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받아들여라. '별'빛을 보며 걸어라. 이 별이 최근 몇 해 동안 너희에게 했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너희 삶의 모든 시간을 더없이 큰 신뢰를 가지고 지내며, 내 성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거라. **M**

(이 메시지는 1973년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콤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및 성시간

일시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7시

(묵주기도 - 미사 - 성시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02-6374-2200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 너희의 마음이 언제나 기도로 가득 하기를 바란다.

신경남 스테파노

카푸친 작은 형제회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 2009년 10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에게 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 나는 너희 모두를 축복하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시작하신 이 길을 가면서 성장 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 주일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신자들과 인사를 나눌 때, 아이들을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을 해 줍니다.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 좋아합니다. 사제의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을 전해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메시지에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반복되는 말씀인 듯 하지만, 두 번씩이나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만큼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한없이 나누어주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그분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시기에 어머니의 특성상 그것을 당신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자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모님은 "나는 너희 모두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자녀들인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십니다.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순한 어린이처럼 그분께서 손을 얹어 축복해주시도록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십니다.

기도하고, 단식하며, 너희의 신앙을 기쁘게 증거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의 마음이 언제나 기도로 가득 하기를 바란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 기도와 단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쌍두마차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더욱 하느님을 바라게 만들고, 단식은 우리의 육신적 욕망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 우리를 참으로 영적인 인간, 우리의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 열한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9-2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에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이 사명에 불림 받았습니 다. 어떻게 해야 이 선교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쁨에 찬 신앙 증거를 통해서 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야고 2,17,26)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 다. 우리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 실천이 뒷받침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기쁘게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신앙을 증거하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늘 기도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마음에는 기쁨과 신앙이 자리 잡을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매 미사가 끝날 때마다 당신은 사제를 통하여 아버지와 성령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성체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에게 축복을 아끼시지 않는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예수님, 매일 매일 당신의 크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감사 드리지 못하고, 축복의 근원이신 당신을 잊고 사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모님,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당신의 은총을 저희에게 나누어주고자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성모님, 당신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잘 알아 듣고 기도하며 단식하고, 저희의 신앙을 기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M**

(선교회에 이 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성모님의 매달 메시지와 묵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안내

미  
크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achovia Bank    계좌번호 : 2000012394184  
송금번호 : ABA# 031201467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미  
크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동이체 후원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1-159808  
연락처 : 권 레지나 010-3654-3521  
박안젤라 019-252-1387  
노마리노 010-7310-9678  
E-mail : qpmmkr@gmail.com



# 기도는 모두를 변화시켜 줍니다.

저자: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이: 남기옥 마르타

질문 : 무엇 때문에 공산당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요조 신부 : 경찰 중의 한 명이 런던으로 이민을 간 크로아티아인들 중 민족주의자들이 발행하는 '새로운 크로아티아'라는 잡지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제 방을 수색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고 가구 위에 쌓아 두었던 '글라스 끈칠라'와 '나사 오그니쉬타'라는 잡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사망 부고장들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 경찰은 런던에서 발행되는 그 잡지를 제가 보던 잡지들 사이에 슬쩍 끼워서 저를 미사 시간에 내보낸 것입니다. 미사에서 돌아와보니 경찰국장과 17명이나 되는 경찰들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의자위에 올라서더니 제 가구 위에서 '새로운 크로아티아'라는 잡지를 발견했다고 승리감에 도취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에서 찾아낸 거요. 자, 들춰봐요!" 나는 말했습니다. "절대로 들춰보지 않을거요!" 17명이나 되는 경찰들과 끈질긴 토론이 설 틈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잡지에서 지문검사를 합시다! 지문이 그 잡지의 주인을 찾아 줄 겁니다!" 확신에 찬 제 말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모

두 밖으로 몰려나갔던 그들은 곧 다시 와서 저를 체포했습니다. 리브노부코비차에서 55km, 스플릿에서 100km에 있는 경찰서로 저를 연행해 가던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을 들었습니다. "젠장, 한 7년 정도는 교도소에서 못 나오도록 조작한 사건인데 이것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군!" 그들은 자정이 되어서야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형사가 타고 온 택시를 타라는 것을 거부하고, 근처의 성당까지 걸어가서 신부님을 깨웠습니다. 그분이 부코비차에 있는 제 본당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질문 : 메주고리에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계속하셨는지요?

요조 신부 : 참으로 큰 시험이었습니다. 내적인 고통이었지만 이것은 제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길을 개척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구든지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일상의 삶에서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믿고 살아 간다면, 그것이 바로 메주고리에의 지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느



## 지금 당신의 손에 묵주를 쥐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당이나 신자들의 마음 안에 메주고리에의 메시지를 심어 주고 살아 가도록 하는 것, 즉 그곳에 또 하나의 메주고리예를 형성하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루르드와 파티마에서 묵주를 손에 들고 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묵주기도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묵주기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늘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저는 묵주기도를 사랑합니다. 묵주를 손에 들고 있으면 마음이 무척 편안해집니다! 묵주기도의 다섯 신비를 묵상하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트린 다윗의 무기였던, 다섯개의 자갈돌에 비유해서 가르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묵주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힘을 가진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묵주를 쥐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동정녀의 작은 다윗으로 선택되어 그 힘을 전하는 작은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야훼의 이름으로 믿고 행하십시오. 그분은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조 신부님은 다음 강론을 통하여 모든 이들을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시간이 지난 뒤 기도의 힘은 전쟁을 막을 수 있고 (1992년 4월 25일 메시지) 사람들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분명한 확신이며 체험입니다. 저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도의 힘, 특별히 묵

주기도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  
다. 묵주기도는 거룩한 기적의 힘  
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  
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삶과 신  
비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해줍니다. 성령께서는 성모님의  
사랑을 통해 기도하는 이의 마음  
을 비추시어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다 보면  
열정적인 믿음으로 그분의 길을  
따르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단 한  
번도 오십 번, 백 번, 천 번씩 똑  
같은 성모송을 한다 해도 조금도  
지루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  
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모송은

하나 하나가 새로운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성경에 지혜로  
운 처녀들이 등잔에 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성모송은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주는 등유 방울입니다. 반  
복되는 묵주기도는 매 얼마마다 새로운 등유 방울이 되어 등  
잔을 채워주고, 결국은 그 불이 밝혀져 다른 이들에게도  
신앙의 빛을 전해줄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보호와 축복과  
평화를 전해주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손에 묵주를 들고 기  
도하는 이들을 보면 굳은 믿음의 힘이 느껴집니다. 혹시  
기도할 때 분심이 들어 신경이 예민해진다거나 지루함을  
느낀다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십  
시오.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믿는 것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고 전할 줄 아는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됩니  
다. 그런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분은  
살아 계신 하느님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나의  
평화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자신과 주위 환경 모두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위한 표징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살아 계신 하느  
님을 체험할 수 있는 충만한 은총 안으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  
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  
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리라... 내 이름으로 청하는

## 그분은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것은 무엇이냐 다 이루어 주겠다.”(요한 14,13-14 참조) 그럼에도 기도는 청하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 감사드리고 우리들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이고 신비한 결합으로서, 그분이 주신 모든 선물과 은총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 안에 밝게 드러나시도록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위이시고 그분의 풍성함 안에 우리를 쉬게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해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20) 주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는 일상의 시험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믿고 의지하는 이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질문 :** 출소하신 후에 공산당원들이 신부님을 괴롭힐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요조 신부 :**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공산당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어떤 형태로든 정치범으로 갇혔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교도소는 학교같은 곳입니다. 권력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시키고 상처를 입히는지 뚜렷히 배웁니다. 물어 뜯지 않으면 안되는 잔인무도한 사자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제게 아무런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자, 우리 본당 청년들을 연행해서 마구 구타하고 재판에 넘겨 구치소에 가두고, ... 제가 민족주의자들이 되라고 세뇌시켰다고 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공산정부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민족주의자로 낙인 찍어서 사회에서 격리시킨 후 제거하곤 했습니다.

**질문 :** 그래서 신부님을 메주고리예와 멀리 떨어진 티할리나로 보내버린 거군요?

**요조 신부 :** 1985년도 티할리나주민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본당구역은 너무 작았고 반면에 성당은 무척 큰 곳이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공산당원들의 부당한 대우와 엄청난 폭력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모두 피난을 떠나 몇명의 노인들 밖에 없었습니다. 성당문은 너무 오래 닫혀

있어서 열리지도 않았고... 모든 것이 처참할 정도로 도태되고 있었지요...

**질문 :** 순례자들은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어 간다고 합니다.

**요조 신부 :** 강론과 교리등의 가르침을 듣고자 먼 길을 기쁘게 찾아와 주곤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했던 순례자들이 기도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이런 기도회가 저에게 무척 큰 힘이 됐습니다.

**질문 :** 대부분 크로아티아 순례자들이었나요?

**요조 신부 :** 그들 뿐만이 아니라 독일과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예를 찾아 왔습니다. ... 첫 번째 순례자들은 발현 초기 본당사제인 저의 말을 듣고 싶은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지금과 비교가 안되지만 어쨌든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티할리나가 어디에 있는지 버스나 자동차를 위한 도로 표시도 없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수 천명의 순례자들이 그 먼길을 찾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희생이었습니다. 공산당 정부는 전화와 전기, 우체국도 없는 이런 낙후된 마을에 저를 보내버리면 아무도 저를 찾아내지 못하리라고 의도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M**





## 늘 우리와 함께

성체를 영할 때 우리의 영혼 육신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풍성히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우리 안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체 안에서 우리는 빵의 모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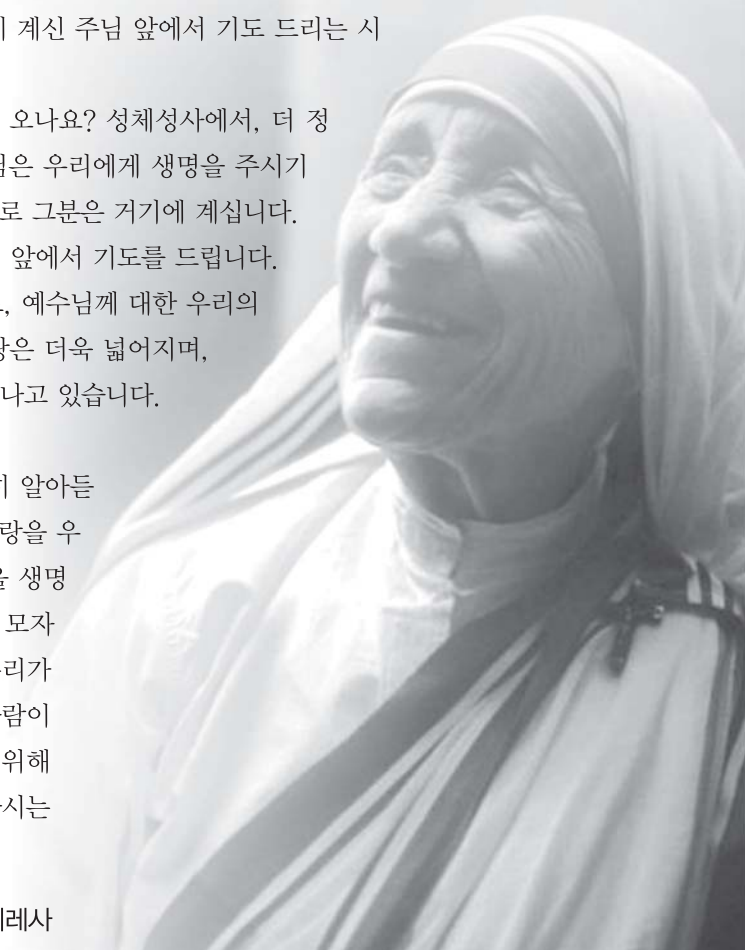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수고하며 일할 때 우리는 인간의 몸과 피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영성체를 할 때에나 힘든 일을 할 때에나 똑같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빛이신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켜요. 온 마음으로 그분의 거룩하신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분을 아는 은총,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 그분을 섬기려는 용기를 주시라고 그분께 청하세요. 열정적으로 그분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모든 순간, 특히 감실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기도 드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히 득이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오나요? 성체성사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영성체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밤낮으로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매일 한 시간씩 성체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한 이래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 서로의 사랑은 더욱 넓어지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은 더욱 넘쳐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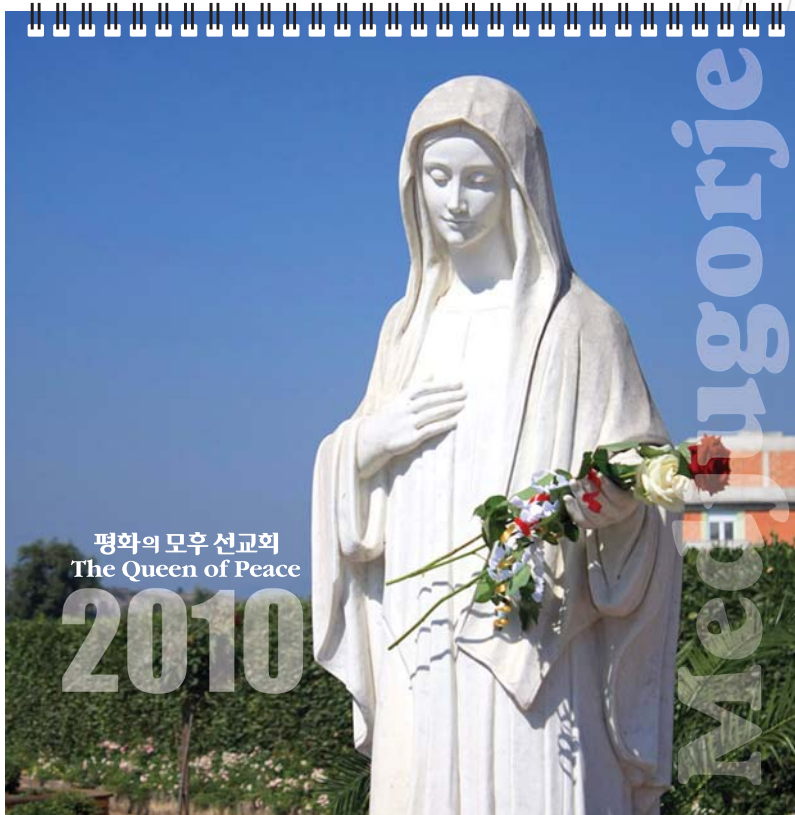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듣고, 또한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갈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고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사랑을 향한 당신의 허기를 우리가 채워 드릴 수 있도록 스스로 허기진 사람이 되어오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애타게 바라시는 그분의 허기를 채워 드립니다.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2010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평화의 모후 선교회 창설 10주년을 기념하며 메주고리에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메주고리에와 관련된 사진들과 성모님의 메시지를 묵상하도록 만든 이 달력을 통해 성모님과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  
저희 가정을 위하여 빌어 주시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문의처** 미국 ▶ Tel : 610-366-9612 ▶ E-mail : [qpm.org@gmail.com](mailto:qpm.org@gmail.com)



한국 ▶ Tel : 02-2281-3236 ▶ E-mail : qpmmkkr@gmail.com



## 우리 주 예수의 탄생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다. (...) 마리아는 두꺼운 겹옷에 폭 싸여서 회색 나귀를 타고 간다. 안장 앞쪽에는 헤브론 쪽으로 여행할 때에 이미 본 적이 있는 장치가 있고, 그 위에는 필수품들을 담은 궤가 놓여 있다. 요셉은 고삐를 잡고 곁에서 걸어간다. "피곤하오?" 하고 가끔 묻는다. 마리아는 미소를 짓고 그를 보며 "아니요" 하고 말한다. 세 번째에 가서는 마리아가 "오히려 걸어가는 당신이 피곤하실 거예요" 하고 덧붙인다. "오! 나는 아무렇지도 않소. 내가 나귀 한 마리를 더 구했더라면, 당신이 더 편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것 같소. 그러나 나귀를 구하지 못했구료. 지금은 모두 나귀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용기를 내요! 멀지 않아 우리는 베들레헴에 도착할 거요. 이 산만 넘으면 에프라타요." 그리고 둘 다 말이 없다. 동정녀는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같다. (...) "축소?" 하고 요셉이 묻는다. 바람이 일기 때문이다. "아니요." 그러나 요셉은 안심이 되지 않는다. 그는 나귀 옆구리로 늘어진 발들을 만져본다. 그녀의 긴 옷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이는 샌들을 신은 발이다. 요셉이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보면 발이 차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는 어깨에서 겨드랑이로 메고 있는 담요를 벗겨서 마리아의 다리 위에 펴고 가슴에까지 올려 손이 담요와 겹옷 밑에서 따뜻하게 한다. 그들은 양떼를 몰고 길을 가로지르는 목동을 만난다. 요셉이 몸을 숙여 그에게 무슨 말을 한다. 목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요셉은 나귀를 붙잡고 양떼의 뒤를 따라 풀밭으로 들어가게 한다.

목동은 그의 배낭에서 그릇을 꺼내 젓이 통통 불은 뚝뚝한 양의 젓을 짜서 요셉에게 건네주니, 요셉은 그것을 마리아에게 준다. "하느님께서 두 분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마리아가 말한다. "당신은 당신 사랑 때문에, 또 당신은 당신의 친절 때문에,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십니까?" "나자렛에서 옵니다." 하고 요셉이 대답한다. "그래 어디로 가시오?" "베들레헴예요." "저런 상태에 있는 여자에게는 먼 여행이군요. 당신의 아내요?" "그렇소, 내 아내요." "어디 갈 데가 있소?" "아니요." "거 난처하게 됐소. 베들레헴에는 거기서 등록을 하거나 다른 데로 가서 등록을 하기 위해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꽉 들어차어요. 당신들이 숙소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 그곳을 아시오?" "잘은 모르오." "그렇다면... 여자를 위해 (그러면서 마리아를 가리킨다)... 가르쳐 드리지요. 여관을 찾으시오. 여관은 만원일 거요. 하지만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여관을 알려주는 거요. 여관은 광장에 있는데, 그것이 제일 큰 광장이지요. 제일 큰 거리를 따라가면 길을 잘못 들을 수가 없소. 여관 앞에 샘이 하나 있고, 여관은 크고 낮고 현관이 달려 있지요, 여관은 꼭 찻을 거요. 여관과 여관 옆집에서 방을 구하지 못하거든 여관 뒤로 해서 들판 쪽으로 가시오. 산에는 여관에 자리가 없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인들이 가끔 그들의 짐승을 두는데 쓰이는 마구간들이 있소. 산에 있는 마구간들이요, 알겠소? 습하고 축고 문도 없소. 그렇지만 여자가... 길에 남아 있을 수는 없으니 그래도 의지할 곳이 될 것이요. 어쩌면 당

## 달빛은 마리아를 빛나는 흰 빛의 후광으로 둘러 싼다.

신들이 잠자리로 쓰고 나귀에게도 줄 건초가 있는 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들과 같이 계시기를 바라오."

"하느님께서 당신께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마리아가 대답한다. 요셉도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하고 말한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난다. 가파른 언덕을 넘자 아주 넓고 낮은 땅이 나타난다. 그 움푹 들어간 곳에는 집들이 줄지어서 빙 둘러싸고 있다. 이것이 베들레헴이다. "마리아, 다윗의 고장에 다 왔소. 이제는 당신이 쉬게 되었소. 대단히 피곤해 보이는구려...."

"아니예요, 저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마리아는 요셉의 손을 잡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한다. "정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요?" "걱정 마세요. 요셉,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침착한지 보세요." "하지만 대단히 아플텐데..."

"아! 아니요. 저는 기쁨이 넘쳐요. 어찌나 강하고 아름답고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인지, 심장이 아주 세게 뛰며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요!'라고 말할 지경이에요. 심장이 뿔 때마다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하느님의 입맞춤을 엄마에게 주려고 내가 왔어요' 하고 내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아! 너무나 기뻐요, 요셉!" 그러나 요셉은 기쁘지 않다. 그는 급히 의지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걸음을 재촉한다. 이 문 저 문을 두드리며 의지할 곳을 청한다. 그러나 마땅한 곳이 없다. 모두 사람이 들어 있다. 그들은 여관에 도착한다. 여관은 안마당 둘레로 있는 회랑 밑에까지 야숙하는 사람들로 꽉 차있다. 요셉은 나귀를 탄 마리아를 안마당에 남겨두고 다른 집들을 찾아보려고 나간다. 그랬다가 낙담해서 돌아온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겨울의 이른 황혼이 어둠의 장막을 드리우기 시작한다. 요셉은 여관 주인에게 애원하고, 손님들에게 애원한다. (...) 아무 소용없다. 한 부유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있는데, 요셉을 눈에 띄게 멸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리아가 가까이 가자 문동병 환자라도 가까이 간 듯이 옆으로 비긴다. 요셉이 그를 바라보는데, 분개하여 얼굴이 벌개진다. 마리아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요셉의 손목에 손을 얹고 말한다. "고집부리지 마세요. 잠시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여관과 초라한 집들 사이에 나 있는 골목길을 따라간다. 매우 낮고 축축해서 마구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굴이나 지하창고 같은 것들이 있다. 그중 좋아 보이는 것들은 벌써 사람들이 들어 있다. 요셉은 막막하다. "여보! 갈릴래아 사람!" 하고 뒤에서 늙은 사람이 소리친다. "그 안쪽, 그 무너진 더미 밑에 굴이 하나 있소. 어쩌면 아직 사람이 들어 있지 않을 지도 모르겠소."

그들은 그 "굴" 가까이 간다. 무너진 건물의 더미 가운데 은신처가 하나 있고, 그 나머지로는 굴이 하나 있는데, 굴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산에 뚫린 구멍이다. 옛날에 있었던 어떤 건축물의 기초 같은데, 거기에 네모나게 잘 다듬지도 않은 나무줄기로 버티어 놓은 자재들이 지붕노릇을 한다. 햇빛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더 잘 보기 위하여 요셉은 부식깃과 부식들을 꺼내서, 어깨에서 겨드랑이로 맨 배낭에서 꺼낸 작은 등에 불을 켜다. 그는 안으로 들어간다. 소의 울음소리가 그를 맞이한다. "마리아, 이리와요. 굴이 비어 있소. 소 한 마리밖에 없소." 요셉은 미소짓는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소!..." 마리아는 나귀에서 내려 들어간다. 요셉은 기둥 구실을 하는 나무줄기 중의 하나에 박혀 있는 못에 작은 등을 걸어 놓았다. 요셉이 풀시렁에서 짚을 많이 꺼내다가 마리아의 침대를 만들어 주려고 소를 저쪽으로 밀 때에도 역시 알아듣는 것 같다. 마리아는 피로하여 등이 없는 걸상에 앉아 바라보며 미소짓는다. 이제 다 되었다. 마리아는 폭신한 건초 위에 그럭저럭 자리잡고 나무줄



## 예수가 너에게 평화를 갖다 줄 것이다.

기에 어깨를 기댄다. 요셉은 텐트 역할을 하는 그의 걸옷을 출입구로 쓰이는 구멍에 찢는 것으로 실내장식을 마친다. 매우 불완전한 은신처이다. 그런 다음 "이제는 자도록 하오" 하고 말한다. "나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있겠소. 다행히 나무가 있소. 불이 오래 가고 잘 타기를 바랍니다. 등잔의 기름을 절약할 수 있겠소." 마리아는 순종하여 눕는다. 요셉은 곧 마리아의 걸옷과 처음에 발을 덮었던 담요로 덮어준다. "그렇지만 당신은... 추우실 텐데요." "아니오, 마리아. 나는 불 곁에 있소. 좀 쉬도록 해요. 내일은 좀 더 나올거요." 마리아는 사양하지 않고 눈을 감는다. 요셉은 나뭇가지들을 조금씩 써서 하나씩 불에 던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얼마 안 되는 그 나무를 오래 가게 한다. 등잔에는 기름이 다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는 불의 미광 밖에는 없어서 희미한 빛 속에 소와 요셉의 얼굴과 손의 흰빛만이 부각된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희미한 어둠 속에 섞여 버리는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성모 마리아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환상 자체가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겸손과 순결의 교훈을 얻어내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다. 쉬어라. 내가 예수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는 것과 같이 너도 깨어 있으면서 쉬어라. 예수가 너에게 그의 평화를 갖다 줄 것이다."

마리아는 그의 자리에서 머리를 들고 바라본다. 마리아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머리를 가슴에 파묻고 있는 요셉을 보고, 깨어 있겠다는 그의 착한 뜻이 피로에 꺾였구나 하고 생각한다. 마리아는 미소 짓는다. 환한 미소이다. 마리아는 장미꽃에 앉는 나비가 내는 소리보다도 더 조용하게 앉았다가 무릎을 꿇는다. 마리아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기도를 드린다. 팔을 거의 십자 모양으로,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앞으로 내밀고 기도하는데, 그 힘든 자세로 피로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다가 한층 더 심각한 기도의 자세로 얼굴을 건초에 대고 엎드린다. 기도가 오래 계속 된다. 요셉이 잠이 깬다. 요셉은 천천히 일어나서 자리로 가까이 간다. "마리아, 자지 않소?" 하고 묻는다. 그는 세번이나 그 말을 묻는다. 마침내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대답한다. "기도드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소?" "없어요." "좀 자도록 해보오. 적어도 좀 쉬기라도 해요." "그렇게 해보겠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드리는 것은 피곤하지 않아요." "잘자요, 마리아." "잘자요, 요셉." 마리아는 다시 자기의 자

세로 돌아간다. 요셉은 더 이상 잠에 지지 않으려고 불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도한다. 불에 나무를 엮을 때나 손을 땀다. 그리고는 다시 열렬한 기도로 돌아간다. 달빛은 마리아를 빛나는 흰 빛깔의 후광으로 둘러싼다. 마리아는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머리를 들고 다시 무릎을 꿇는다. 아! 이 순간엔 정말 아름답다! 마리아가 머리를 드는데, 흰 달빛으로 빛나는 것 같고, 인간의 것이 아닌 미소로 변모하였다. 그 순간에 마리아는 무엇을 보는 것일까? 무슨 소리를 듣는 것일까? 무엇을 느끼는 것일까? 나는 다만 마리아 주위에 빛이 커지고, 커지고, 또 커진다는 것밖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고 마리아의 둘레에 있는 보잘 것 없는 물건들에서 발산하는 것 같고, 특히 마리아에게서 발산하는 것 같다. 짙은 하늘빛인 마리아의 옷이 지금은 물망초와 같은 부드러운 하늘빛을 띠었고, 손과 얼굴은 거대한 밝은 청옥의 불 아래 있는 것처럼 하늘빛이 된 것 같다. 이 빛깔을 보니, 비록 더 엷기는 하지만 거룩한 천국에 대한 환상에서 봤던 빛깔이 생각나고 또 동방 박사들이 오는 것을 본 환상의 빛깔도 생각난다. 그 빛깔은 특히 물건들 위로 점점 더 퍼져서 그것들을 감싸고 깨끗하게 하고 찬란하게 해 준다. 마리아의 몸에서 빛이 점점 더 발산하여 달빛을 흡수한다. 그 빛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것 같다.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빛을 맡아 가지고 있는 여자이고, 세상에 그 빛을 주게 될 여자이다. 세상에 주어지려는 찬란하고, 저항할 수 없고, 더불어 헤아릴 수 없으며, 영원하고 숭고한 이 빛이 새벽과 더불어, 새벽을 알리는 지저귐과 더불어, 깨어나는 새벽빛과 더불어, 점점 더 커지는 빛나는 원자들의 합창과 더불어, 거대한 향의 소용돌이 모양으로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밀물처럼, 급류같이 내려와서 베일 모양으로 펼쳐지는 밀물처럼 퍼진다....

투박한 나무로 만든 구유는 광을 낸 은덩어리가 되었다. 벽들은 수단으로 덮인듯하고 비단의 흰 바탕이 도드라지게 수놓은 진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땅바닥은... 땅바닥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흰 빛으로 비추어진 수정이다. 불쑥 내민 곳들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땅위에 던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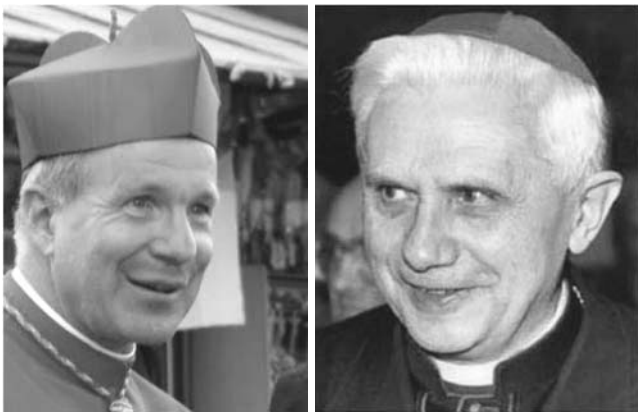
놓은 빛나는 장미꽃들과 같다. 그리고 구멍들은 향기와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귀중한 잔들과 같다. 빛은 점점 더 환해진다. 눈부시어 눈으로 그 빛을 견딜 수가 없다. 그 빛 속으로, 마치 백열한 빛의 베일에 빨려 들어가듯이 동정녀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빛에서 어머니가 나타난다. 그렇다. 내 눈이 빛을 견딜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마리아가 갓난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본다. 장미꽃 봉오리 만한 손과 장미꽃 속이라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작은 발을 흔들며 몸부림치는 분홍빛의 토실토실한 작은 아기, 작은 나무딸기 같이 빨간 입을 벌리고, 장미빛 입천장을 맞치는 작은 혀를 보이면서 꼭 금방 난 어린 양의 목소리같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는 아기. 어떻게나 얇은 금발인지 머리카락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작은 머리, 동그란 작은 머리를 흔드는 아기. 어머니는 그 작은 머리를 한손바닥으로 받쳐 들고, 동시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거기에 입맞춤을 하려고 머리를 숙인다. 그러나 순결한 머리에 입맞추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작은 심장이 있는 가슴 한가운데에 입맞춘다... 나중에 상처를 입게 될 그곳에, 어머니는 티없는 이의 입맞춤으로 그 상처를 미리 치매 준다. (...)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서 초연할 정도로 열심히 마치 탈혼상태에서처럼 기도하고 있던 요셉도 몸을 흔든다. 그리고 얼굴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이상한 빛이 새어들어오는 것을 본다. 그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머리를 들고 돌아선다. 서 있는 소에 가려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를 부른다. "요셉, 이리 오세요." 요셉은 달려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흥송하는 마음으로 꼼짝 못하게 된 것같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고 한다. 그러나 마리아가 조른다. "오세요, 요셉." 마리아는 왼손으로 건초를 짚고 오른손으로는 아기를 붙잡고 가슴에 꼭 껴안으면서, 다가오려는 마음과 불경스러움을 걱정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망설이는 요셉 쪽으로 간다. (...) "오세요, 예수를 아버지께 바칩시다."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요셉이 무릎을 꿇는 동안, 마리아는 천장을 받치고 있는 두 들보 사이에서 서서 두 팔로 아기를 쳐들고 말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느님, 이 말씀은 아기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더불어 저 마리아와 제 남편 요셉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경우든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당신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몸

을 숙이고 말한다. "요셉, 받으세요." 그러면서 아기를 준다. "나! 나에게! 아! 안되오! 나는 자격이 없소!" 요셉은 하느님을 만져야 한다는 생각에 당황하여 몹시 겁을 내고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집한다. "당신은 넉넉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보다 더 자격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어요. 요셉, 아기를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배내옷을 찾는 동안 안고 계세요." 요셉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팔을 내밀어 작은 아기 몸을 안는다. 아기는 추워서 운다. 요셉이 아기를 안았을 때의 경외심으로 아기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려는 생각은 오래지 않았다. 그는 아기를 가슴에 껴안고 흐느끼면서 말한다. "오! 주! 내 하느님!" 그리고 그 작은 발에 입맞추려고 얼굴을 숙이다가 발이 푹푹 얼어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자 땅바닥에 앉아 아기를 품에 꼭 껴안는다. 마리아는 껴를 열고 속옷과 기저귀를 꺼냈다. 마리아는 그것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 옆으로 갔다. 이제는 요셉에게로 가서 따뜻해진 속옷을 아기에게 입히고 나서 작은 머리를 그의 베일로 감싸준다. "이제는 아기는 어디다 누일까요?" 하고 말한다. 요셉은 휘 둘러보면서 생각에 잠긴다. 그러다가 말한다. "기다려요. 두 짐승들과 꼴을 좀 더 저쪽으로 밭시다. 더 윗쪽에 있는 먹이통에서 건초를 끌어내려 이 안에 넣읍시다. 이 구유의 전이 바람을 막아 줄 것이고, 건초는 베개가 될 것이고, 소가 입김으로 아기를 좀 따뜻하게 해 줄거요. 소가 나아요. 소는 참을성이 더 많고 조용하니까." 그리고 요셉은 일을 시작한다. 그동안 마리아는 아기를 가슴에 꼭 껴안고 흔들면서 그 작은 머리를 따뜻하게 해 주려고 뺨을 갖다 댄다. **M**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 발췌)



## 메주고리예를 폐쇄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엔나 대교구장 손본 추기경과 라칭거 추기경

저는 오늘 아침 메주고리예에 살면서 영어미사를 위한 음악 작업을 돕고 있는 한 친구로부터 손본 추기경님께서 12월 8일부터 1월 4일까지 메주고리예를 방문할 것이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좋은 뉴스입니다. 추기경님은 1980년대 후반 이래로 메주고리예의 강력한 지지자이십니다. 그분은 라칭거 추기경님께 1989년에, "만약 메주고리예가 폐쇄된다면, 대다수의 성직 지망생들이 메주고리예를 통해 사제 성소를 받았기 때문에 추기경님은 비엔나에 있는 신학교 문도 닫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칭거 추기경님은 "메주고리예를 폐쇄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1998년 손본 추기경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카나에서 하신 말씀, 즉 "그가 시키는 것

은 무엇이든 하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여러 세기 동안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요지라고 믿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도록 갈망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메주고리예에서 만들어진 모든 기도 공동체에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교구와 교회에 바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메주고리예에 가본 적이 없지만, 제가 만나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분명히 여러 번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삶 안에서 좋은 열매를 봅니다. 만일 제가 이 열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저는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며, 우리 교구와 다른 많은 장소에서, 회개의 은총, 초자연적인 신앙 생활의 은총, 기쁨의 은총, 성소의 은총, 치유의 은총, 사람들의 성사생활, 특별히 고해성사로 돌아가는 은총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잘못된 이끄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교로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는 오직 열매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열매로 나무를 판단해야 한다면, 저는 이 나무는 열매가 많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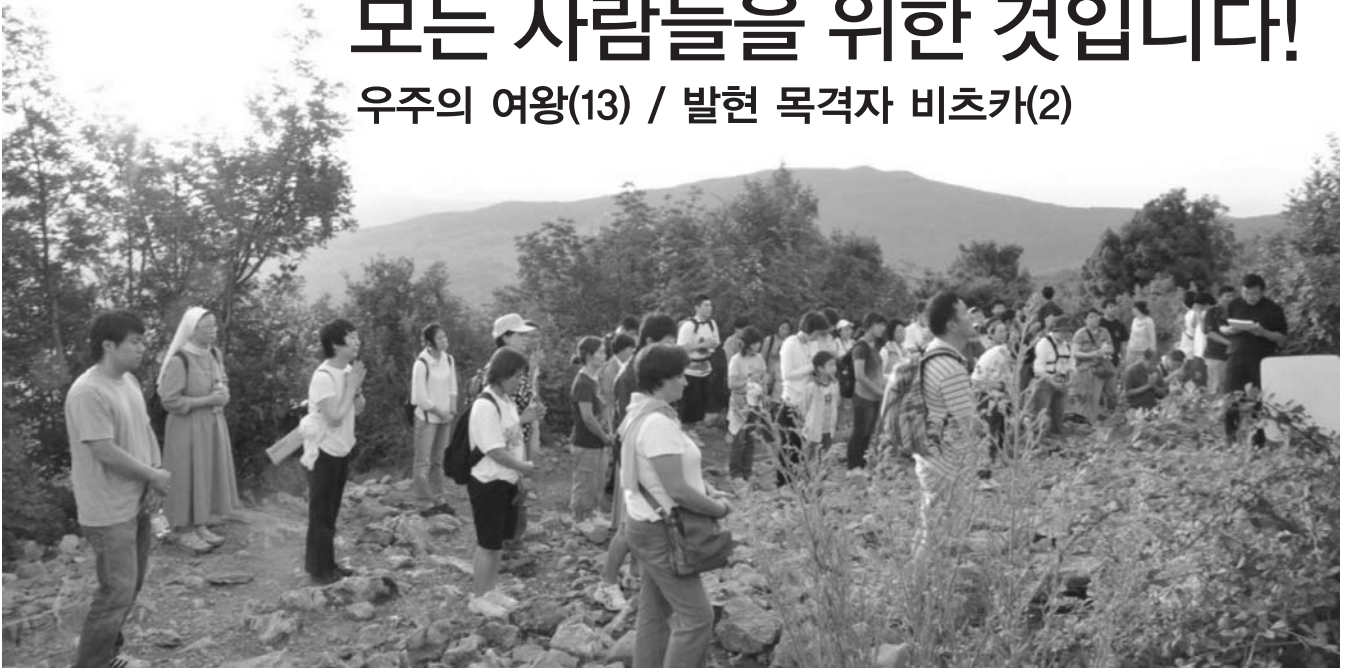
손본 추기경님이 모스타르 교구도 방문할까요? 우리는 물론 그분이 방문하시도록 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Pope Benedict and MarianDevotion 11/09/2009



# 성모님의 발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주의 여왕(13) / 발현 목격자 비츠카(2)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질문 : 당신이 성모님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츠카 : 저는 너무 놀라 도망을 쳤습니다. 너무 빨리 뛰었기 때문에, 신발이 벗겨진 채 도망을 쳤습니다.

질문 : 그 다음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츠카 :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 강력했습니다.

질문 : 성모님을 보을 때, 그분은 행복해 하십니까?

비츠카 : 성모님은 때때로 슬퍼하시고 우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비츠카 : 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화 내시는 모습을 한번도 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같지 않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걱정하실 따름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얼마나

이해심이 깊으시고 인내심이 강하시며, 우리를 걱정하시는 지 모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질문 : 발현은 진짜 사람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희미한 환시 같은 것입니까?

비츠카 :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지니신 진짜 사람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저의 진정한 어머니로 느끼고 체험합니다. 성모님과 함께 있을 때면, 제 엄마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어린애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비단 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시라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서 사랑하시며 하느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길은 신앙, 평화, 기도, 단식 그리고 회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어느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현세 삶 깊숙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며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발현 목격자 비츠카

사람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질문 : 당신은 성모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츠카 :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당신 역시 그분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문 : 제가요?

비츠카 :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뿐만 아니라 당신의 현존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당신은 계속 성모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비츠카 : 네, 저는 항상 제 마음으로 성모님을 뵙습니다. 성모님께서 저에게 발현하실 때에는 제 눈으로 그분을 만나 뵙습니다. 한편 나머지 시간에는 마음을 다한 기도를 통해 그분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질문 : 성모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비츠카 :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분을 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때때로 몇 주간 동안 당신을 뵙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뵙지 못할 때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마음으로 그분을 뵙습니다.

질문 : 모든 사람들이 당신처럼 성모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발현은 당신에게만 가능한 것입니까?

비츠카 : 성모님의 발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천상 어머니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연다면, 우리도 그분과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너무나 겸손하신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당신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질문 : 왜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까?

## 그분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비츠카 : 그분은 절대로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만이 명령하십니다.

질문 : 성모님은 매우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비츠카 : 성모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분의 현존하심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을 여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들을 위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을 거부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 모두는 신앙의 눈으로 그분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모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을 열라." 고 요청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무시하길 원하십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좀 더 당신께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참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질문 : 모든 것을 완전히 의탁하라는 말씀입니까?

비츠카 : 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항상 하느님과 천사들, 그리고 성인들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너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너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조차도 우리는 항상 너희 가까이 있다. 너희가 마음을 열면, 너희는 마음으로 우리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와 단식을 통해 마음을 열면 열수록,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비츠카, 당신은 어떻게 마음을 여십니까?

비츠카 : 저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느님 아버지는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어디에 계신지, 각 문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맺고 있는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

**"나는 너희 모두를 내 아들, 딸로서 사랑하고,  
너희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란다.  
나는 내 자녀 중 단 한명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리가 늘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분을 보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알고 그분에 대해 배우는 것처럼 천상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질문 :**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비츠카 :**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녀들과 길 잃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밤이나 낮이나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전구하고 계십니다.

**질문 :** 이곳에서 성모님께서 주시는 주요 메시지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비츠카 :** 네, 맞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질문 :** 당신은 항상 하나님과 성모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비츠카 :** 그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왜 지금 이곳에 오시는 것입니까?

**비츠카 :**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도 알고 계십니다.

**질문 :**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비츠카 :**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 발현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츠카 :** 네,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 발현이 마지막 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발현하시고 계신 이유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비츠카 :**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내 아들, 딸로서 사랑하고, 너희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란다. 나는 내 자녀 중 단 한명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분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특히 가족 단위로 목주기도를 바치고 단식하는 것은 당신 아드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목주기도 모든 신비를 매일 바치라고 권유하십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과 가능하다면 수요일에도 빵과 물만으로 단식할 것도 권유하십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것은 단지 말로만 하는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기도가 우리 행복의 원천이 되기를



순례자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목격 증인 비츠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분의 크신 자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분은 그 어느 누구도 내치지 않으십니다.

**질문 :**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비츠카 :**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잔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가련하고 죄 많은 자녀들을 단지 사랑하실 뿐입니다.

**질문 :** 인간의 죄를 정화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 비쳐집니다.

**비츠카 :** 그 때문에 성모님께서 이곳 메주고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를 위한 하

느님의 크신 사랑의 표징입니다. 성모님께서 지금 회개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M**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미 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 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카 나 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 / 편집인: 남 그레고리  
 지도신부: 박창득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선교학박사)  
 한국지부장: 박연자  
 후원회장: 권수정  
 웹관리자: 제임스 윤  
 편집위원: 최성득, 이금희, 이규현, 송시원, 한테레사, 남미자  
 인쇄: 동방인쇄, 영인문화 인쇄

### 2009년 11월 2일 미리야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도록 도와주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마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너희가 그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그분이 맨 나중에 사랑 받으셔야 할 분이시냐?  
 너희는 물질적인 것에 둘러싸여 얼마나 많이 그분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그분을 잊었더냐? 나의 자녀들아, 세상적인 것으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마라. 영혼이 몸보다 더 중요하니 너희의 영혼을  
 생각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라.  
 그분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로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당신의 자비로 나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고맙다"



# 멜린다 듀미트레스크 바이올린 연주자



메주고리에는 매년 전 세계에서 수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 온다. 그들은 본당의 거룩한 미사와 성 시간에서 영육간의 많은 치유를 받는다. 수 년째 메주고리에 본당의 성 시간 음악 봉사를 하고 있는 로마니아에서 온 바이올린 연주자인 멜린다 드미트레스쿠는 "평화를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그곳의 성 시간 음악을 모은 CD를 내기도 했다. 독일의 류벡에 있는 음악 아카데미에서 자카 브론교수의 수 제자로써 학업을 마친 멜린다 드미트레스쿠는 자신의 음악 재능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순례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전 세계에 메주고리에의 성 시간을 전파하고 있는 '미르 방송국'의 리디아 팔라스는 그녀가 처음 메주고리예로 오게된 동기와 영적 지도자였던 고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와의 만남을 인터뷰했다. 화려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 사랑의 자녀' 수도원의 일원으로 메주고리예에 살고 있는 멜린다의 체험담은 깊은 감동을 준다.

리디아 : 처음 메주고리예를 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멜린다 : 독일 류벡시에 있는 음악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저는 어릴적부터 음악가로서 몇 년 후의 일정이 예정 되어 있을 정도로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

람들은 저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음악가라는 호칭으로 불러 주었으며 연주회는 늘 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제 마음은 늘 허전함으로 가득 할 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할 때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시기에 우연히 들은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 소식과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채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이올린만 들고 무작정 이곳을 찾아 왔을 때 성당 앞에서 어떤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 "당신이 멜린다 듀미트레스 자매님이지요?" 하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이 바로 슬라브코 신부님이셨습니다.

리디아 : 슬라브코 신부님이 당신을 알아 보셨나요?  
멜린다 : 신부님은 메주고리예에서 처음 만났지만 성모님의 메시지 책에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북부독일은 가톨릭신자가 많지 않았지요. 더구나 메주고리에 순례자들은 전혀 없었기에 여행사들도 메주고리예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1996년 메주고리예를 가기 위하여 성당에 전화를 했을 때 슬라브코신부님과 처음 통

화를 했습니다. 메주고리예가 모스타 근처라는 것만 알고 무작정 스플릿 공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지요... 무사히 도착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 꼭 메주고리예를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독일의 프랑크 푸르트 공항에서 우연히 '성모마리아 순례' 라는 배지를 단 미국 순례단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메주고리예 순례단이었는데 제가 혼자 메주고리예를 간다는 것을 알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스플릿 공항에서 메주고리예를 향해 버스를 타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의 메주고리예 이야기는 슬라브코 신부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성당에 도착한 저를 알아 본 신부님은 성당에서 연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음악을 들으신 신부님은 저에게 메주고리예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그 후 학교를 졸업 한 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라브코 신부님은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셨습니다. 예술가들을 무척 사랑해주셨던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저를 데려가셔서 바이올린연주를 하도록 하셨지요. 가끔은 루마니아 순례자들을 위해 통역을 하고 발현 언덕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셨어요. 신부님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웠고 순례자들에게 큰 손실이지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브랑코 신부님과 스베틀조라 신부님, 그리고 다른 프란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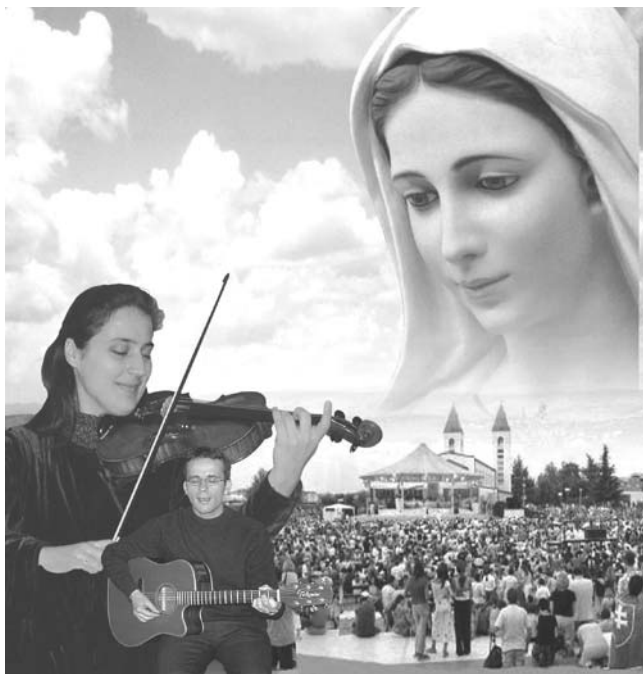
코회수사님들이 슬라브코 신부님의 유업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리디아 : 어떻게 메주고리예의 생활에 익숙해 지셨나요?

멜린다: 1996년 슬라브코 신부님의 성시간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해 음악 봉사를 하는 공동체를 알았습니다. 메주고리예 열매중의 하나인 그 공동체의 젊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제 사명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음악가들을 무척 사랑하셨던 슬라브코 신부님은 로사리아 원장수녀님이 창설하신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 설립 때도 영적 지도를 해주시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로사리아 원장수녀님은 제가 하느님과 성모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셨지요. 저는 메주고리예에 머무면서 더욱 더 영적으로 성장할수있는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전하면서 저역시 많은 신앙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 음악가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어머니 마을 자선금을 한 첫 CD를 만들었을 때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셨습니다. 이 CD는 크리스찬만이 아니고 무슬림, 힌두교인들과 교회에서 멀어진 이들의 영적성장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음악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준 것이지요.

리디아 : 당신의 바이올린 연주는 영혼을 울리는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멜린다 : 음악가이셨던 저의 부모님은 갓 태어난 저를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봉헌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바하와 구노의 "아베마리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신 성모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음악은 저의 마음이고 기도이기 때 연주를 할 때는 먼저 하느님께 봉헌을 합니다. 16세 때 일본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앙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대림시기였고 마침 니콜라스 성인의 축일이었지요. 저는 대림절은 크리스찬들이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라서 그분의 오심을 알리는 곡을 연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아베마리아" 를 연주하자 음악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모두 불교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사람들의 말과 형상을 초월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 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리디아 : 당신에게 바이올린 연주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멜린다 : 바이올린은 제 삶이고 성실한 친구입니다. 또한 내 마음의 기도이고 소리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이고 모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리디아 : 때로는 화려했던 옛날의 무대가 그리지 않나요?

멜린다 : 지금도 콘서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의 직업이 나의 삶을 채울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하고 메추고리에는 제가 살던 고향같이 편안합니다. 성모님은 제가 온 세계 곳곳에서 당신의 현존하심을 전하는 도구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리디아 : 연주자들과 음악 실력을 겨루고 싶지 않으세요?

멜린다 :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경쟁은 좋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함께 성장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6살 때부터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하면서 오직 음악을 위해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지만... 저의 스승님은 가장 훌륭한 음악가 중의 한분이셨던 자카브론이셨는데 데이빗 오즈스트라의 제자이셨습니다. 제가 14살 때 이탈리아의 국제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 그 대회는 저를 최고 음악가 중의 한사람으로 평가해주었지요. 그러나 저의 재능은 하느님이 주신 은총일뿐입니다. 지금은 훌륭한 연주를 위해 매일 8시간씩 연습하기 보다는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하는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음악 재능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최선을 다해 순례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리디아 : 가족들이 당신의 결정을 이해해주었습니까?

멜린다 : 처음에는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모님을 위해 파나마, 레바논, 한국등 외국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행복해한다는 것을 가족들이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 희생하신 일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니아의 정치는 최악이었고 모든 국민들은 희망이 없는 조국을 떠날 수 있기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로마니아에서 활동하는 모두 예술가들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음악가이셨던 부모님들도 특별히 물질적인 능력은 없었지만 지극한사랑과 희생으로 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독일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리디아 : 당신의 미래가 두렵지 않나요?

멜린다 :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모님께 의탁합니다. 그분은메시지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과 예수님의 성심에 봉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손에 매일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 새로 태어 난 아기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지요... 저 자신의 회개와 온 세상의 회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디아 : 스승이신 자카 브론은 기대했던 제자의 현재 삶을 어떻게 볼까요?

멜린다 :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가 살아 가는 모습을 보면 왜 누구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살아 가는 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세상은 그분들을 모릅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2~3년 전 쉐즈버그에 있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면 일분당 500유로의 연주료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바로 그 때에 저에게 바이올린을 맡겼던 주인이 바이올린을 사겠다는 손님과 함께 저를 찾아 왔습니다. 저는 정말 그 콘서트에서 연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린을 독일로 보내야만 했어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보내고 연주를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이틀 후, 그 바이올린을 독일로 보냈습니다. 얼마 후 이 소식을 들은 분들이 저에게 그 바이올린을 살수있는 만큼의 필요한 돈을 주셨습니다. 제가 바이올린 보다 먼저 "당신의 뜻대로 이



루어 지소서" 하고 의탁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이올린을 되돌려 주신 것이지요... 그 때의 체험은 제가 앞으로 살아 가야하는 인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고 싶어 하는 예수님을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도 믿어야겠지요. 사람들은 나의 연주가 영혼을 채워준다고 말합니다. 음악은 내 삶의 한부분이고 바이올린은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모님이 언제나 먼저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이올린은 한 조각의 나무일뿐입니다.

리디아 : 로마니아 시민으로 이곳에서 살아 가는 것이 괜찮은가요?

멜린다 : 제가 전문가로서의 연주를 포기하였을때, 저는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외국여권을 포함하여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 초대받았을 때, 항상 비자를 얻기 위해서 복잡한 많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제가 메주고리에 성당에서 계속 연주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영주권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께서 꼭 주실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메주고리에의 봉사자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제가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리디아 : 메주고리에에서 영원히 살아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멜린다 : 세속을 떠나 메주고리에에서 살아 간다는 것은 잠시 순례를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을 걸어 가는 것처럼 힘든 여정이지만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할 때 하느님이 주시는 큰 은총과 축복을 체험 할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쁨과 눈물, 행복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메주고리에의 기도와 성시간, 음악을 통하여 상처 받은 마음들이 위로받고 굳은 마음들이 화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순례자들의 눈빛 속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모습에서 그들이 은총속에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은 자신들이 받은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에 채워지는 은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손길입니다. 순례자들은 성모님의 은총으로 이곳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있겠지요.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일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메주고리를 찾아 오는 순례자들은 참 좋은 축복을 받아 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또 하나의 예루살렘이 되어 자신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머무실 곳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에를 저는 저와 우리 공동체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신과 순례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모든 것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알렐루야! **M**







# "나는 훌륭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란다."

발현목적증인 이반의 체험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메주고리에에 순례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말씀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모님은 엄마들처럼 언제나 단순하십니다.

그분은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지난 28년 동안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8년 동안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며, 성모님께서서는 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분의 사랑의 학교, 기도의 학교에 다니게 하시며, 훌륭한 학생이 되기를 원하셨고, 저희들은 매일 숙제를 잘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성모님을 뵈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하루 아침에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매일 매일 변화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죄와 악을 보고 듣고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늘 제게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어머니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성모님께 왜 저를 선택하셨느냐고 여쭙어 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란다." 그 후, 다시는 그런 질문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며 동시에 큰 책임이 주어진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요청하시고, 제 한평생 그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분을 5-10분간 만나 뵈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분께서 떠나가시면 제가 다시 세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2-3시간이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평화와 기도와 보속과 단식과 성체와 굳은 믿음과 희생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메시지를 우리에게 단순하게 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981년 "나는 평화의 모후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래, "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려고 나를 보내셨단다." "평화, 평화, 평화, 오직 평화뿐이다." "사람들 사이에,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없어 이 시대를 위험하게 하며 인간들이 스스로 파괴를 자초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임금이신 아드님으로부터 오십니다. 오늘날 평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평화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힘이 있으면 교회도 힘을 얻고, 너희가 약해지면 교회도 힘을 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교회의 어머니이시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힘을 주려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 손을 잡고 아드님께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이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가정 안에 기도가 없음을 탄식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 가정에 기도가 없구나."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이 없고, 자녀들은 공부때문에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이 없어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은 가정을 떠나며, 세계 곳곳



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낙태가 자행되기에 성모님은 울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평화와 희망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마음에 평화가 없고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단다. 평화를 말하지 말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가정의 첫째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성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제는 가정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육체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평화를 내려주려고 너희와 함께 있단다."

"나는 너희가 필요하단다." 성모님께서는 지칠 줄 모르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되풀이해 말할 때 지친다고 할 말을 안합니까? 공부하라고 수천 번씩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피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했더니 잘 듣는다고 행복하다고, 그런 엄마가 있나요? 엄마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되풀이해 말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엄마 한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반, 성모님이 왜 이렇게 오래 오시는 거죠? 늘 되풀이하여 말씀하시고 새로운 것도 없잖아요? 성당이 있고 성경이 있고 성체가 있는데, 왜 성모님이 필요한가요?" 네, 그것들은 다 있지요. 그렇지만 성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따라 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의 전통을 알아야 합니다. 미사도 참례하지 않으며 고백성사도 보지 않고 가정기도도 하지 않으니,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 머물기를 원하신단다." 매달 고백성사, 성체조배, 사제들이 본당에서 성시간을 시작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단식하도록, 우리를 당신의 성심에 감싸 주시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묵주기도가 언제 끝나는지 5분마다 시계를 보지 말고, 기도를 결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사랑으로, 사랑과 함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가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여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하루 3시간씩 기도하여라." 미사, 성경, 묵주기도, 가정 기도, 성체조배, 이웃을 돕는 행동을 호소하십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하루 3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느냐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해에 이분이 또 찾아와서 지금은 성모님께서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고 묻기에 24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대답했더니, 그럼 작년의 3시간을 택하겠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기도에 참으로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계산적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의 학교에는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단다. 더 잘 기도하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합니다. 할 일은 많고, 남편을 직장에 보내야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도 챙겨야 하고, TV도 보아야 하고 쇼핑도 해야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 없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정복하며, 사랑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의 모든 지향을 성모님께 봉헌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시간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자신과 지향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시작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과 이웃, 온 세상에 하느님의 표징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상, 성모님의 세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위기에서 온 것입니다. 하느님을 선택하십시오. **M**

- 한 아오스팅 마리아 역.



##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양희, 강재복, 광복화, 권금옥, 권효정, 권희성, 김건일, 김금성,  
 김마테라, 김명숙, 김명희, 김복례, 김복선, 김세록, 김주희, 김수연,  
 김아네스, 김안나, 김영서, 김영옥, 김유경, 김원희, 김재자, 김정선,  
 김주희, 김지은, 김혜숙, 김호영, 김효정, 김춘자, 김태희, 남순자, 노종만,  
 문방자, 민병돈, 민정숙, 민혜레나, 박병칠, 박선영, 박숙진, 박영실, 박영희,  
 박정자, 박청희, 박프란체스카, 박혜영, 배, 백낙현, 백안셀모, 서정열, 서지희,  
 송테레사, 신베드로, 신순덕, 신요안나, 신태경, 심시문, 안연숙, 엄봉화, 엄토마스,  
 오글로리아, 오미카엘, 우송지, 유종애, 유막달레나, 윤근순, 윤소화테레사,  
 윤요셉, 윤현옥, 임가경, 임주자, 임효경, 이글라라, 이동우, 이명진, 이봉주,  
 이선이, 이순세, 이순자, 이선화, 이운용, 이영분, 이은경, 이인순, 이재열,  
 이주상, 이현로, 이현숙, 장영아, 전신혜, 전스미자, 전종례, 전현숙, 정명좌,  
 정성민, 정운도, 조동진, 조모니카, 조성희, 조은자, 주정숙, 진도미니카,  
 지니김, 지현남, 차세실리아, 최도경, 최미카엘라, 최명숙, 최선영, 팽정숙,  
 한경열, 한영옥, 한정선, 황계자, 황의진, 황혜정, 허안나, 홍옥선, 익명,  
 밴쿠버 성김대건 본당 평화의 기도회회원과 레지오단원

Yoon Lee, Myoug Spence, Young Choe, Tak Lee, Dave Burger,  
 Cynthia Ziegmann, Mary K. Lee, Helena, Henry Yerger, Eileen Cho,  
 Trettel Yun, Liga Rigoni, Lim, Soon, Mary Lamb, Insuk Mullins,  
 Anna Cho, Hyun, Enami, Jennifer Han

**성**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는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분들은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소식지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회원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소식지가 반송되지 않도록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꼭 선교회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지난호 후원금	\$11,088.00
지출 :	
평화의 모후 소식지	
후원회원봉투 인쇄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13,650.00
잔액	- \$ 2,562.00



참된 애덕은 남의 결점을 모두 참아 견디며,  
 그들의 약함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극히 조그만 덕행까지도  
 본보기로 삼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은 마음속 깊이 가두어  
 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Return Address

# 파리, 루르드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주관 2010년 성지순례 안내

**2010년 3월 19일 - 27일**

메주고리에 - 드브로브닉 순례 (8박9일)

**2010년 5월 19일 - 31일**

메주고리에 - 드브로브닉 - 루르드, 파리 순례 (12박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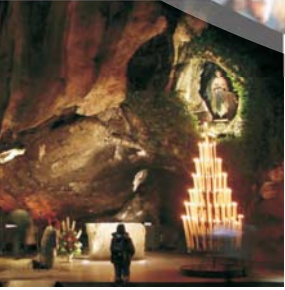
**2010년 7월 26일 - 8월 8일**

"International Youth Festival" (13박14일)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로마, 아씨시

문의처 :

610-366-9612 / E-mail : [qpmm.org@gmail.com](mailto:qpmm.org@gmail.com)



PRSR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